

# “눈 가려진 장정 실려간 곳, 총소리 울렸다”

# 제주 영리병원 운영 오늘 결정 도지사 재량권 인정 여부 쟁점

## 4·3행불인 유족 그날의 기억

“(마지막 면회에서) 오빠가 목포형 무소에서 6개월만 살다 오겠다고 말해 (이송되는 날에 맞춰) 제주경찰서에 갔더니 오빠는 없고 유치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 보니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린 장정들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트럭이 제주공항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 공항 쪽으로 가는데 총소리가 나다다다...”

4·3 광풍에 휘말린 24살 청년은 70년이 지나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시 애월읍 신임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김기호씨는 1949년 봄,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마을 입구에서 체포돼 제주시 관덕정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동생 문정여(85·여)씨는 오빠의

## 제주지법, 유족 40명 제기 재심청구 사건 심문 진행 공항서 가족 유해 찾은 2명 증언... “진실 밝혀주길”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 그해 8월 면회를 갔을 때 이미 오빠는 어디론가 끌려가고 없었다. 오빠의 유해는 수십년이 지나 제주공항에서 발견됐다. 이후 유전자 감식을 거쳐 신원이 확인된 오빠의 유해는 2018년 11월 22일 제주평화공원에 안치되며 가족에게 돌아왔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문정여씨 등 4·3 행방불명인(행불인) 유족 40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의 심문이 열렸다. 현재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행불인 유족은 문씨를 포함해 350여명이다. 4·3행불인들은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1948년 12월(1차)과 1949년 6~7월(2차)쯤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

소 등으로 끌려간 뒤 대다수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그동안 4·3수형인 중 생존인을 상대로 한 재심은 있었지만 행불인에 대해서는 없었다. 올해 6월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김기호씨 유족 등 14명이 제기한 4·3 행불인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긴 했지만 아직 재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는 문씨를 포함해 그나마 유해를 찾은 유족 2명이 법정 증언했다. 4·3 때 형 김여순씨를 잃은 김여권(80)씨도 그 중 한명이다. 김씨의 형은 1949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경찰서에 수감됐다가故人 기호씨처럼 제주공항으로 끌려가 총살 당했다. 동생 김씨는 재판부에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호소했다.

오빠를 잃은 문씨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문씨는 “가슴에 한이 맺힌다. 너무 억울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었다.

재심을 가릴 쟁점 중 하나는 4·3 행불인들이 법적으로 사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유족들은 4·3행불인이 숨진 것으로 보고 제사까지 치르고 있지만 사망진단서 등 공식 문서상 사망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일부 수형인들이 가족들이 연좌제로 피해를 볼까봐 형무소에 수감될 당시 실제 이름을 대지 않는 바람에 호적과 수형인명부상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이들의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도 쟁점으로 남았다.

한편 재판부는 앞으로 검찰 측의 의견서를 받아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녹지측 제기 소송 선고 공판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을 가를 1심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국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 조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만큼 국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이 재판부에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의 쟁점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조건을 불일 재량권이 제주도 지사에게 있느냐이다. 녹지 측은 재판과정에서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특별법상에 의해 제주도지사에게 있지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대상을 정할 재량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녹지 측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토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녹지측병원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위법한 조건으로 인해 기한 내에 개원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또 개원이 지연되면 제주도가 업무정지 15일 등 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개설 허가를 취소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면 우선 개원하고 나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다투야 하는데 녹지 측은 개원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허가 취소 과정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 드림타워 대규모 채용 신규 직원 출근 시작

어제부터 200여명 첫 출근  
내달까지 1500명 추가 합류  
부문별 실무 교육 등 돌입



19일 제주한라대학교 금호세계교육관으로 첫 출근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신규 직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취업난이 깊어지는 가운데 3100명에 이르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대규모 신규 채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말 입사통보를 받은 신규 직원 200여명이 19일부터 제주 한라대학교 금호세계교육관으로 첫 출근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월 드림타워 인근에 입사 사무실을 개설한 이래 그동안 주로 경력직원들을 꾸준히 뽑아왔지만 신규 직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오는 26일 800명에 이어 11월에는 700명의 신규 직원들이 추가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들 중에는 제주고와 한림공고 등 특성화고 출신(23명)과 함께 도내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 23명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출근을 시작한 직원들은

객실과 식음 및 조리 부문의 경력 및 신입 직원들로 회사소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실무교육 및 트라이얼 런(Trial Run) 등 4단계의 교육 과정을 밟게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한 소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브랜드 교육 및 법정 필수 교육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시대에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호텔이 되기 위한 행동수칙 등을 교육한다.

부문별 실무교육에선 각 부서의 전담 트레이너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지식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받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교육도 함께 받는다.

이후 본인이 근무할 부서의 매니저들과 실습형 교육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서비스 능력을 향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트라이얼 런(Trial Run) 단계에서는 실제 오픈 상황과 동일하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습하며 오픈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객실부문 신입사원 김진영씨(29)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좋은 일자리를 갖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드림타워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민기자 bigroad@ihalla.com

## 직업병 인정 소방관 10명 중 1명 안돼

### 제주지역 인정비율 8%

제주지역 소방관의 직업병 인정 비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강원, 제주지역 소방관의 직업병 인정 비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

무원복지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얻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으면 직업병 판정을 받아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소방관 812명 가운데 620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 8%인 52명만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강원지역 소방관의 직업병 인정비율은 6%였다. 이는 전국 평균 22%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이상민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내년 1월부터 추가 신고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에 대한 추가신고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신고기간을 재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3 당시 타 지역에서 제주를 방문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증인의 범위도 희생자의 친족 등으로 확대했다. 오은지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고 고품질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강,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새마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나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 991-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